

##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모두말씀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직접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유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셔서 인사드리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김우전 회장님께서 몇 가지 국가의 시혜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일 몇 가지가 저의 공로로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에 대한 책임도 제게 돌아올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해 놓은 일은 너무 적고 남은 일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바쁘고 또 한편 무겁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8·15광복절에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1만명이 안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불과 4~5년 동안 30만명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레지스탕스로 인정받고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년이 아니고 의병의 시기까지 따지면 50~60년이 훨씬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침탈의 역사를 겪어 왔는데, 아직 1만명밖에 포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척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도 아직 제대로 다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남은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발굴하는 데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서 묻혀진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좌우 대립의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독립운동사의 한쪽을 일부러 알면서도 묻어 두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체제 속에서 과거 독립운동 시기에 우리 선열들이 가졌던 이념과 사상이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역사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대로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광복 60돌입니다. 60돌이 다 되도록 아직 공로를 찾아서 포상할 분들마저도 다 포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포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유공자 여러분과 후손 여러분께 참으로 미안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먹고 챙겨서 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로가 있는 분들,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포상이 되도록 조치하고, 또 포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서 공식확인을 반드시 해 두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듯이 어느 정권이든 정권은 유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일은 매우 고귀하고 소중한 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역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적·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사를 바로 찾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토대를 만들어 가는 데 제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처럼 만나셔서 좋은 말씀 나누시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유익하고 기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